



월드컵 소식

신인왕 포돌스키·메시·호날두 3파전

득점왕 경쟁도 치열
클로제 4골 선두 속
호나우두 등 6명 추격

2006독일월드컵 득점 순위
28일 6시한국시간 현재
4골 미로슬라프 클로제
3골 루카스 포돌스키
2골 호나우두

골의 에르난 크레스포, 막시 로드리게스의 '아르헨티나 듀오'도 무시할 수 없는 득점왕 후보들이다.

신인왕 부문은 루카스 포돌스키(독일),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3파전 양상이다.

신인왕 부문 인터넛 팬 투표에서는 16강에서 떨어진 에콰도르의 루이스 발렌시아가 3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신인왕을 최종 선정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테크니컬 스태디그룹의 참고 자료에 그칠 전망이다.

이 투표에서 메시와 호날두는 17%를 얻고 있지만 포돌스키는 3%에 그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득점왕이나 신인왕 부문 모두 우선 팀 성적이 뒷받침돼야 수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6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득점왕, 신인왕 경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득점왕 경쟁을 달군 일등공신은 단연 호나우두(브라질)다.

이 부문 단독 1위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의 페이스도 만만치 않다.

스), 안드리 셉첸코(우크라이나)도 아직은 2골이지만 그 잠재력이 있어서는 득점왕 후보로 큰소리치기에 손색이 없다.



위성미가 28일 로디아일랜드주 뉴포트의 뉴포트골프장에 열린 LPGA US여자오픈 연습라운드를 4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내친김에 US여자오픈까지”

오늘 개막...태극남자들 상승세 이어 5개 대회 연속우승 노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를 사실상 접수한 한국 선수들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US여자오픈은 1949년 창설돼 올해 61회째를 맞는 여자골프 최고(最古) 역사를 자랑하는 이벤트이자 미국골프협회 주관하는 13개 내셔널대회를 대표 가운데 US오픈과 함께 가장 권위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총상금도 여자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310만 달러에 우승 상금도 56만 달러에 이르러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현대 골프의 발상지로 알려진 로디아일랜드주 뉴포트의 뉴포트골프장(파71)에서 29일(한국시간) 오후부터 4일

간 열린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관전 포인트는 역시 22명이 출전하는 한국선수들의 우승 여부다. 이 대회마저 우승하면 5개 대회 연속 우승과 함께 메이저대회 2연승을 달성하게 된다.

지난달 코닝클래식부터 4개 대회를 잇따라 제패한 한국 선수들의 상승세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절대지존”으로 군림하던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쇠락세가 뚜렷한 데다 카리 웹(호주)을 빼고는 ‘코리아인 돌풍’을 저지할 선수가 마땅치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박세리(29·CJ)가

짧힌다. 1998년 이 대회에서 맨발 투혼을 앞세워 90홀 홀투 끝에 우승컵을 안았던 박세리는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슬럼프를 벗어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부상했다.

웨그먼스LPGA에서 정상에 올라 우승 감증을 풀어버린 장정(26·기업은행)도 이미 메이저 왕관을 써본 경험이 있어 박세리 못지 않게 우승 확률이 높은 선수다.

아직 메이저 우승컵이 없는 김미현(29·KTF)과 한희원(28·힐라코리아)도 주목받는 우승 후보다.

위성미(17·나이키골프)의 출전도 대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장타력을 내세워 언제나 우승 경쟁에 뛰어 들기 때문이다. 위성미는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LPGA 투어 대회 우승에 ‘올인’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노장’은 죽지 않았다

佛 지단, 스페인전 썩기골...노쇠 이미지 벗어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사진)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시작했다.

지단은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하노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2006 독일월드컵축구 16강전에서 팀의 세번째 썩기골을 쏘아올리며 팀의 3-1 승리와 8강행을 이끌었다.

지단은 2-1로 앞서던 후반 인저리 타임 상대 왼쪽 페널티지역까지 돌파해 들어가 자신을 막아서던 수비수 카를로스 푸을을 가볍게 따돌린 뒤 오른발로 슈팅, 스페인 왼쪽 골 구멍을 흔들었다.

대회 개막 직전 3차례 평가전과 대회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보여준 지단의 모습은 볼배급의 날카로움이 떨어진 데다 개인기와 스피드도 예전같지 않았다.

4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 맛 본 참담한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세월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듯했다.

더구나 간판 골잡이인 티에리 앙리(아스날)와 호습이 맞지 않아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잇따랐다.

이렇다보니 프랑스가 지단을 선발로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다.

아트사커 설계자로 불리며 세 차례나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선

정되고 1998년 자국 월드컵과 2000년 유럽선수권(유로 2000)에서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끌며 세계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던 지단으로서의 불명예 스런 퇴장이 걱정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상대 미드필더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중원 주 도권을 잡기 위해 투혼을 불사했다.

결국 지단은 이날 경기를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로 만들겠다는 스페인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호언장담을 거짓말로 만들었고 프랑스를 ‘늑은 수탉’이라고 했던 주위의 비난마저 잠재웠다.

프랑스의 8강전 상대는 다름아닌 세계 최강 브라질.

지단은 ‘98 프랑스 월드컵 결승에서 자신이 직접 두 골을 몰아치며 브라질을 3-0으로 꺾어 조국에 사상 첫 월드컵 우승 컵을 안겼던 달콤한 기억이 있다.

지단이 4일 뒤인 내달 2일 오전 브라질과 만나 8년 전 상황을 재연하며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가나 두이코비치 감독 ‘감독 퇴장 1호’ 불명예

2006 독일월드컵축구 ‘감독 퇴장 1호’의 불명예와 16강 진출 좌절이라는 쓰라림을 함께 떠안은 라토미르 두이코비치가 내셔널 감독은 심판의 편파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28일 브라질과 16강전에서 0-3 완패를 당한 뒤 두이코비치 감독은 “주심한테 차라리 (브라질대표팀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브라질은 두 차례 경고를 받은 데 비해 가나는 여섯 차례나 옐로카드를 받았고 아사모아 기안은 후반 36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심판 경기 컨트롤 못해” 베켄바워 위원장 비난

각종 판정 오류와 경기 운영 미숙으로 독일월드컵축구 심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란츠 베켄바워 대회 조직위원장까지 이에 가세했다.

베켄바워 위원장은 28일 “심판들이 경기를 100%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베켄바워의 이같은 비난은 최근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포르투갈-네덜란드 16강전에서 16개의 옐로카드를 꺼내며 선수 4명을 퇴장시킨 러시아 출신 발렌틴 이바노프 주심에 대해 “심판이 오히려 경고를 받을 만했다”고 비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한편 심판에 대한 오심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FIFA는 8강전부터 심판 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FIFA 심판 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8일 회의를 열고 8강전 4경기의 심판을 결정할 계획이다.

伊-호주전 오심 논란 태극서 살인까지 불러

2006독일월드컵축구 이탈리아-호주전에서 불거진 페널티킥 오심 논란이 결국 살인까지 불러왔다.

28일 로이터통신은 태극 축구팬 두 명이 지난 27일 카이저스라우테른에서 벌어진 이탈리아-호주 16강전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페널티킥 판정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절명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팬인 사라 찬나롱(20)은 호주대표팀을 응원해 온 라비에보 토크찬(45)이 “주심이 편파적이었다”고 비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태극 경찰은 이들이 태극 남부 나른 시 터마란의 한 식당점에서 술을 마시며 TV중계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다행히 정확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재응 탱과베이로 전격 트레이드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29·사진)이 LA 다저스에서 탱과베이 데블레이스로 전격 트레이드 됐다.

다저스 공식 홈페이지는 28일 다저스가 서재응과 마이너리그 트리플A 포수 디아너 나바로(22)를 탱과베이에 내주고 대신 선발 투수 마이크 헨드릭슨(32)과 포수 토비 홀(31)을 데려오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서재응은 지난 1월5일 뉴욕 메츠에서 다저스로 트레이드 된 뒤 5개월23일만에 다저스를 떠나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새 야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다.

네디 콜라티 다저스 단장은 “헨드릭슨은 후반기 팀의 선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다. 홀은 벤치 멤버로 도움을 줄 경험 있는 포수”



라며 트레이드 배경을 설명했다.

다저스에 합류한 헨드릭슨은 올 시즌 탱과베이에서 4승8패, 방어율 3.81을 기록했고 홀은 루키 포수 라셀 마틴의 백업 포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엽 25호 홈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25호 홈런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28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원정경기에서 0-2로 뒤지던 4회초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상대선발 카도쿠라 3구를 그대로 받아쳐 우측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만들었다.

시즌 25호 홈런으로 지난 23일 주니치전 이후 4경기 만에 나온 것이다.

홈런 순위 2위인 요코하마의 무라타 쇼이치의 격차는 5개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령기 양궁 종합우승

광주가 제24회 대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따내 제87회 경북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광주는 지난 23~28일까지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피카라운드 경기방식으로 치러진 단체전에서 남궁(광주체고), 남대(호남대), 여대(광주여대)가 1위를 차지하고, 여고(광주체고)가 3위를 거둬 시·도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12발씩 발사해 64강부터 토너먼트로 결승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구수라(광주시체육회) 銀

동해무릉기 사격 女 공기소총

구수라(광주광역시 체육회)가 제3회 동해무릉기 전국실업단체사격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수라는 28일 동해 실내사격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499.2점으로

로 은메달과 함께 신인상을 따냈다.

구수라는 박지영·장하나(광주광역시 체육회)와 조를 이뤄 공기소총 단체전에 나섰으나 5위에 머물렀다.

최재중·문성환·정승민(동신대)은 공기권총 남대 단체전에서 1,715점을 쏘 2위를 기록했으며 최재중(동신대)은 남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도 673.5점으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오늘 개성서 회담

남북한이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6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남북한은 29일 오전 10시30분 개성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파견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개최한다.

남측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 김정길)는 박성민 KOC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상우 KOC 총무와 이상원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2팀장 등 5명을 위원으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해 12월 개성에서 1차 회담을 열었으나 선수단 선발 및 훈련 방안 등에서 의견차가 너무 커 단 한가지도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